東大新聞

發行人 金東益
編輯人 崔巍煥
主幹 宋齡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㉓3130~9
本社直通 ㉒8498

每週木曜日發行

4學年만 13일 차츰 正常化, 圖書館도 개관

……○학생들의 개헌반대 데모로 인해 ……○……長회의를 소집하고 13일부터 사○……
……○지난달11일부터 무기 휴강을 단○……○……내를관방하면서 점차적으로 속강○……
……○행한 본교는 13일부터 卒業班인 ○……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그 첫 단○……
……○4학년생에 한하여속강하기로 결○……○……계로 졸업이 일마남지않은 4학○……
○정했다。학교당국은 지난6일學處……○……년에 限하여 속강하기로했다。○……

전례없던 早期방학되는등 학교추년은 삼업한 이 끝난 본교는 지난9월등교제한으로말미암아 길은 1월부터 개교、무사히 학 정적속에 빠졌었다。 기발시현을 마쳤으나 9월 달국은 학원정상화의 일 10일에열린 3선개헌반대성 환으로 지난2에는 도서 기 토대회로 사실상 2학기강 관열람실을 정상화 시키고 휴강을 의가 불가능하여 휴강에들 착적인 정상화의 개강과함께 어갔었다。 한국大學史上 가장 긴 공 6일 巡例학회장 회의에서 색하고있다。수강신청 기일 안은 한대 등교길이 차단 휴교철회에 대한 논의를거 밝혀지지 않았으나 4학년 이하 각학년에대해 터 속강하기로 결정했다。 2학년대로 결 은 아직 자세한 내용은 어진 다음에 실시될것으로 보인다。 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 데 金學年의 개강이 이루 지난달 15일로 마감을했으나 휴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학 력에 불타있는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한편 동행한 金仁洙여사는 지난번 본교와「아이오아」대학과의 자매결연을 주선했던 柳永洙 학교부총장 공사 化寧中·商業高等學校가 가장 난관이던 岩盤發破作業을 거의 끝냄으로써 졸업식에서는 金東仁人의 10월하순경에는 完工을 보게 되리라고 발표했다。 원래 금년6월에 완공할 계획이던 운동장공사는 그 동안 다소 지연되어 왔은 워장과 현재 80%의 공사를강행, 이고있어 운동장 주위의샤 「字型」으로된 스탠 드 조성만 끝나면 10월하순 완공될것으로 보인다。

총부지 5000평의 국민학교 건축공사는 본교와 서울시로부터 난관 극복 서울시로부터 기증받은 10월 국제규격 축구장 승 인을 얻어 총 7천3백만 원의 예산으로 작년9월1 일 공사를 재개、오늘에이 른것이다。 이 운동장이 완 성되면 본교생의 체육 및 ROTC의 훈련장으로 활용되어 시설시민에게도 공개될예정이다。

博士3、碩士19명 10일 後期卒業式 거행도

<金熙坤 박사>

<蔡丙錫 박사>

<趙義俊 박사>

69학년도 후기 졸업식이한 10일 오전10시 蔡炳錫 연구처 논문이、蔡丙錫교 寧長을 비롯한 교내외 귀 賓 한 연구수가 참석한 빈다수가 참석한다。 國農촉지도 사업에 교 가운데 강당에서 거행된다。 趙義俊 강사는「아메리카 植民時代 이번 후기 졸업식에서는 의 농촌과、 8월 문교부 村落에 관한 연구」논 오랜 연구의 結晶으로 博 의 최종승인을 얻어 이번 士 3명、碩士 19명이학위를 발게되었다。 學位 行政大學院연 6명과 1953명의 학위를 받게되며 또한 이번에 석사학위를 이번에 대학원 졸업생은 대 학위는 11명이며、6명의 행정대학원이 학과졸업 ▲1948년 원 蔡丙錫 교수가 연구과정 수료생과 합 산 농업대학교 농학부교수 교수와 4년동안 대학에서 공 ▲1952년 충천농과대학 부교수 ▲1954년 東國 부교수 ▲ 농림대학 부교수 ▲ 大學校 趙義俊 박사 ◇金熙坤 박사 ▲1917년6월3일 평 북출생 ▲1938년평북의주 공립농업학교졸업 ▲1948 년 동경대학 농업 ▲1955년 東國大學校 농림대학교수 ▲1956년 東國大學校 농학부교수 ◇蔡丙錫 박사 ▲1906년 5월4일충 북출생 ▲1929년日本大 板 學 ▲1932 년 東京帝國大學졸업 ▲1、 ▲1964년 東國 市立 서울농업대 學校 농림대학 교수 ◇趙義俊 박사 ▲1915년10월5일 울출생 ▲1934년 동양 화학공업주식회사 사장 ▲ 1960년 東國大學校 제학과졸업 ▲1962년 東國大學校 대학원 경제학박 사과정수료 ▲1966년東 國大學校 경상대학강사 ◇각과별 졸업생 수 ◇대학원=문교과 2명、 정치과1명、법학과3명、일 학과2명 ▲행정대학원=조직관리5 명、인사행정1명、지방행정1명 4명、재무행정 ▲연구과정=조직관리1명 ▲인사행정2명、재무행정2 명、개발행정1명 ▲학부=불교과 4명、문리 대34명、법정대16명、경상대 73명、농림대28명、 산업대12 명、2부대26명 ▲ 졸업생 수는 다음과같다。

「學園正常化」성토

總學生會、學生백여명 모여

6일12시 李相敏(經·3)부회장의결 의문낙독을 끝으로 약30분 간에걸친성토대회를마쳤다。 또한 지난 9월10일에는 본교생 1천여명이 聖像앞에 모여「삼선개헌반대」성 토대회를 가졌다。 이날 9시부터 개강일인 이날 시작한 학 속속 등교하기 내생들은 10시쯤에는 천여명 이 聖像앞에 집결、「삼선 한 처사」라고 전제、「학 개헌결사대」라고 쓴 흰 생들이 소기의 본분에 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망 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적 삼선개헌을 즉시 중 전면 속강하여 학구적분위 止할 것을 다하라」라는 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라」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고 축구했다。이어 佛敎大 하고 데모에 돌입、스크럼 宋炳旭(印·3)회장의 총 을 짜고 학교문을 거쳐 교 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낭독 문까지 진출했으나 미리대 과 崔大 張世茂 (食工· 鎭卓군과 기하고있던 2백여명의 기 3)회장의문교부장관에게보 동경찰대의 제지로 교문을 내는 메시지낭독、총학생회 나서지 못하고다시 캠퍼스 출학생회에서는 부터 1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인가운데 學園正常化를촉구하는 성토대회를 교정에서 가졌다。 이날 金洪萬(行·3)총 학생회 회장은 선언문 낭 독을 통하여「일시적인 데 모방지를 위해 무기한 교문을 차단하는 것은 내 일을 못보는 탁국의 잔인 한 처사」라고 전제、「학 생들이 소기의 본분에 배 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전면 속강하여 학구적분위 기조성에 최선을 다하라」 고 축구했다。이어 佛敎大 宋炳旭(印·3)회장의총 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낭독 과 崔大 張世茂 (食工· 3)회장의문교부장관에게보 내는 메시지낭독、총학생회 장의 성토대회를 끝으로 약30분 간에걸친성토대회를마쳤

論理性의 研究

아리스토텔레스

학문과 論理와의 관계

<佛敎大敎授> 尹 明 老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한 경험가와 학문인과의 차이를, 전자는 어떤 사실을 다만 하나의 사실로서만 알고있을뿐인데 후자는 그사실의 所從來인 원인을 탐구하여 사실을 이원인으로부터 推論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파악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험가의 지식은어디까지나 우연성 삼대성을 면치 못하는반면 학문인의 지식은『그사실이 달리 있을수 없음』을 앎으로서 필연성, 절대성을 지니게 되는것이요、이 점에서 학문인은 경험가『보다 현명한』사람이라고 할수가있다。

이처럼 學的지식은 사실을 한갓 사실로서가 아니라 그것의 원인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필연적, 절대적 지식인을 그 특징으로 할진대、그것은 반드시 다음과같은 두가지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아니된다。

첫째로 원인으로서 파악된 명제(즉 전제)와 해당사실을 표명하는 명제(즉 결론) 사이의 추리관계가 형식적 無모순성 내지 필연성을 지녀야 한다。 전제와 결론사이의 이와같은 필연적관계 내지 無모순성의 諦제약을 論究한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형식논리의 추리에 해당하는「分析論前篇」이었다。

그러나 전제와 결론 사이의 이러한 형식추리적인 無모순성은 각기 전제와 결론의 내용상의 진리여부를 불문하는만큼 學的 지식의 필요조건이기는 하되 충분조건수는 없다。 그까닭은 學的 지식은 진리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사실에 뒤한「논증적 추리」에 일각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톤제로 學的 지식은 논증의 諸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아니되거니와、이 문제를 천착한 것이 그의 「分析論後篇」이었다。

논증적 추리는 이처럼 學的 지식을 定礎하는 방법인만큼、그 전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①논증의 전제는 결론의 필연성을 定礎하려는 것인만큼 그 자체가 진리를 표명하는 명제이어야 한다。 ②논증의 전제는 결론에 비하여 「보다 큼 결론에 비하여 「보다 명백한것」、논리적으로 「보다 앞서는 것」이어야 한다。 ③전제에 있어서의 술어는 주어의 어떤 특정한 事例나 특정한경우에만 타당하는 것이 아니라、「모든 事例」、모든 경우에 타당하는것」이어야한다。 ④전제의 주어와 술어사이에 진술되는 관계는 「본질적인것」이어야 한다。 ⑤논증에 있어서의 궁극적 전제는 「근본적·직접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는 논증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마지막에서 거론된 논증추리의 시발점이 될 궁극적전제에는 「공리」(axioma)와 「提題」(thesis)와의 두가지가있다。 전자는 예컨대 모순율이나 排中律과같이 모든 지식의 진제가되는「직접적인 궁극원리」로서、「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공통원리」(Koinaiarchai) 라고도 부른다。 후자는 각각 특수과학의 탐구에 필요한 원리로서、이는 다시 「假設」(Hypothesis) 과 「정의」(Horismos) 와의 두종류로 구분된다。 가설은 예컨대 산술학에서 「수의 존재」를 기하학에서 「공간적크기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과 같은 특징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이에 진술되는 관계는 「본질적인것」이어야 한다。 ⑤논증에 있어서의 궁극적 전제는 「근본적·직접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는 논증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마지막에서 거론된 논증추리의 시발점이 될 궁극적전제에는 「공리」(axioma) 와 「提題」(thesis)와의 두가지가있다。 전자는 예컨대 모순율이나 排中律과같이 모든 지식의 진제가되는「직접적인 궁극원리」로서、「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와같은 전제를 파악할수 있는 우리의 「능력」(epagoge) 에 의하여 획득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납은 어디까지나 지각된 특수사례들로부터 「보편적 원리」에로 移行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特殊事例에 대한 우리의 지각의 영역을 극한된 것이요 결코 그 전체를 망라할 수는 없는만큼、知覺된 特殊事例들로부터 歸納을 통하여 보편적 원리를 파악하는데는 특수한 다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능력을 「理性的直觀」(nous) 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論證推理의 전제가 갖추어야할 조건 내지 그 특징을 살펴 보았거니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물론이오、설령 그 전제가 참된 것이라 하더라도 논증의 과정이 타당성을 결여할 경우에는 학적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①전제가 비록 논증의 추제에 적절하고 그 사실도 정당하지만、그 전제의 내용이 필연성을 결여할 경우 ②전제가 주제에 적절하고、내용상 참된 것이기는 하지만、그 사용이 잘못임 경우 (즉 추리과정이 형식추리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경우) ③내용上 옳긴 그르건 간에 주제에서 벗어난 전제를 사용할 경우 ④논증이 「事實」과 「根據」를 동시에 밝혀 주지 못할 경우。 이 ④의 경우의 예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박쥐이지 않는 천체는 지구에 가까이 있다。 유성은 반짝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성은 지구에 가까이 있다」이서는 추리를 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구에 가까이 있는 천체는 반짝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지구에 가까이 있는 천체는 반짝이지 않는다」라고 해야 사실뿐만 아니라 근거까지도 밝혀주는 論證推理가된다는 것이 아니라、「모든 事例」가 「지구에 가까이있다」라는 사실과 「반짝이지 않는 것」이 서로 다른 이두사실을 결합하

東西思想에 나타난

共同研究

中國古典 學問理論보다 實踐을重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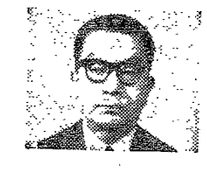
中國論理學 學問的체계화 안돼

言語의非精密로 文意모호

金炳奎 〈佛敎大교수〉

〈金炳奎 교수〉

〈李明老 교수〉


〈韓相璉 교수〉

〈李鍾 교수〉

〈1〉

한문은 논리사상과 함께 생천발전한다。동양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중국고전의 논리성을 연구하려는 주목적은 바로 이점에 있다。

중국고전에는 墨子를 비롯한 名家。荀子등의 학설에서 논리학적 일면을 엿볼 수 있다。그러나、이것은 중국민족의 사상을 대표할 수는 없다。그러므로、本稿에서는 주로 우리의 마음의 寶鑑이라 할 수 있는 고대경전에 나타난 실례를 들어 廣泛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논리성에 관한 연구는 우선 언어의 반성이 필요하다。이것은 서양의 논리학이 언어에 대한 반성에서 발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서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언어의반성은 고전의 논리성 연구의 제일보라 하겠다。이러한 의미에서 고전의 논리성을 연구하기에 앞서 우선 중국어가 지닌 언어로서의 특징과 그 어법을 고찰하는 것이 論究의 진행상 순서일 것이다。

〈2〉

중국어는 언어학적으로는 고립어에 속하는 것으로서 단어의 굴절변화가 없을뿐만 아니라、문장구성에 있어서 부속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문장중의 각 단어는 전연 고립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중국어가 어떠한 방법으로 문법상의 관계를 나타내는가?

첫째、문장중의 각성분은 단어의 位次에 의하여 결정된다。일도 歐州系의 언어로서는 語形의변화 즉 문법적 굴절에 의하여 문장을 구성한 각성분을 알아낼수 있고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는 부속어 또는 어미의 변화등에 의하여 문장을 구성한 각단어에 첨가된 부속어 또는 어미의 변화에 의하여 각 성분을 알수있다。다만 단어의 순차에 의하여 어느것이 주어이고 어느것이 목적어인가를 알아낼수밖에 없다。그러므로 한 문장에 있어서 단어의 위치를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고 또는 문장이 支離滅裂하여 의미가 성립되지않는 경우도 있다。

둘째、품사의 종류도 각단어의 문장중에서의 위치여하에의하여 결정된다。중국어는 일반으로 언어형식상의 품사의 구별이 없다。즉 한단어가 어형의변화없이 그 본래의 성질을전환하여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므로 한 문장에 내포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고 또는 문장이 支離滅裂하여 의미가 성립되지않는 경우도 있다。

둘째、품사의 종류도 각단어의 문장중에서의 위치여하에의하여 결정된다。중국어는 일반으로 언어형식상의 품사의 구별이 없다。즉 한단어가 어형의변화없이 그 본래의 성질을전환하여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므로 한 문장에 내포된 단어의 의미는 추리하는것이다。

판단에 있어서는 ①문의형식상으로는 규정판단과 속성판단의 구별이있다。그러므로 고대어의 긍정판단에있어서 그것이 규정、속성 두 판단중 어디에 속하는가는 文의 형식상으로는 찾아낼수가 없고 다만 文을구성한 단어의 의미내용으로부터 認知할수 밖에없다。②우리의 論式에 포함된 개개의 命題는 假言判斷이 대부분이다。

그까닭은 고전에는 지배계급이 그들의 윤리적 입장에서 사람의 사람으로서 할 바 도리를 다하기위해서는 어떻한 수단이나 道程을 밟아야할것인가를 설명한 내용이 주로 수록되었기때문이다。

추리의 일반적경향으로는 ①전제로부터 결론을 導出하는 방법과 主張(事實)으로부터 理由(原因)를밝히는 방법과의 두가지 형식이있다。전자는 서양 형식논리학의 방법과 같은 것이고 후자는 인도논리학인 因明의 방법과유사하다。②추론의 형식으로서의 표현법을 애호한 경향이 농후하다。이러한 경향은 인도인이 하나의 추상을 추구하여 가는 방법 즉 추론에 논증의 중점을 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③중국인은 선례 혹은 사실을 重視하므로、어느 정도 귀납적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는 달리 그들의 尙古的 경향은 경전에 나타난 先聖의 말씀을 절대권위시하여 모든 이론은 이 先聖의 도를 전제로하여 연역한다。다시 말하면 표현의 일반적 경향은 연역적이다。

중국어에는 ①동사의 활용이 없고 ②명사、대명사 등에는 數나 性의 개념이 나타나 있지 않고 ③한자 句式論理學이란 세계의 命題로 推理되는 形式論理學이고、그래서 그것을 論理學이라고 한다。그런데 이같은 논리학이 우리나라에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학생때부터 나의머리속을 맴돌면 문제였다。

그러나 三段論法이 세계의 命題로 되어있고 우리나라 時調도 初章、中章、終章의 구성 글귀로 되어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비교가 될 수있을 이리라고 생각한 것도 오래전부터 이 論理학이라고하면 얼른 서양의 三段論法을 생각할 것이다。그것은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三段論法

大學의 宗教教育

佛教教育을 中心으로——

李 性 輪

○…대학에서의 宗教教育을 論함에 있어 대학이란
○…물론 일반적인 대학사회를 말함이아니고 宗教
○…的 특수성을 基調로하여 운영되어지고있는 미
○…션系 대학을말한다。宗教的 특수성이 그대학 구성
○…원에게 끼쳐주는 영향은 실로 지대한 것이어
○…서 결코 과소평가할수 없다는것은 오늘날 일
○…반적으로 인정되고있는 바이다。그대학만이 지
○…니고있는 宗教的 특수성은 음으로 양으로 작용하
○…여 그런 분위기속에서 학문을 수련하는 점은
○…이들의 인격면이나 정신면 내지는 意識구조에
○…이르기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異質的인
○…형태를 조성하여 주기도하며 그가 사회생활을
○…營爲함에 있어서도 반응은 연쇄적으로 表出되
○…어지고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기서 論하고자
○…하는것은 전반적인 미션係大學(大學社會라해도
○…무방하겠으나)에대한 광범위한 고찰이아니고。
○…佛教宗立학교로서의 本校의 경우를 예로하여
○…現行되고있는 종교교육현황을 주로하여 언급하
○○…고자 한다。

教育과 宗教

○……○

앞에서도 말했듯이 종교적 특수성의 부드는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격과 정신및 意識구조를 이질적인 것으로 만든 것은 조성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異質的이라는 말은 價値觀 중에서 어떤 한가지의 형태를 미하는것으로서 결국 이러한 인의 어여 각이 지향해가는 最上의 방법등 지향하나를 뜻한다。

이러한 조성이 異質的인 宗教精神이로의 매개체를 통하여 교라고 하는 것도 무방하다。

종교와의 관계를 교육과 살펴볼 때 관계가는 철학적으로 볼때 불교의 교육과 종교와의 관계가 있다。

그렇다고해서 教育의목적이 종교와 마찬가지로 絶的인것 혹은 超世間的인것을 志向하고있다는 뜻은 아니다。

교육이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한다고하면 그 성장과 발달에는 원만한 인격의 실현이 내포되어 있다。

원만한 인격의 실현이 善의 價値觀 지향하는것으로서 결국 善의 추구라고 볼수있다。

대체로 종교란 절대적 信仰에 대해 추구하는 태도를 규정지어 말하는 것이반, 절대적 정에 대한 것의 理想的 추구는 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교육과 종교와의 관계가 얼마나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종교를 통한 교육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런 관만에 대해서는 아무런 異議도 없을 줄로 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실효를 거둘수 없는 종교교육의 空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가, 그 원인을 규명하기에 앞서 종교교육이란 말 자체를 다시 소급시켜 생각해 보자。

宗教的 경험

○……○

宗教教育이라고 할때의 「教育」을「훈듀이」에의 「改造」라고 말하고있다。말하자면교육의 철학적 정의는 自我가 성장을 위하여 他我와 상호교접하고 상호교육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반, 절대적 정의는 自我가 성장을 위하여 他我와 상호교접하고 상호교육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과 종교교육이라는 말이 이렇게 정의될때 宗教教育이란 말은「宗教的 경험을 통한 改造」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本校의 종교교육의 부진성의 근거를 지적할수 있다。

즉 종교적 경험을 통하여 改造를 가져다 줄 만한 媒介活動이 극히빈약하다는 것이다。

현재 불교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도 소정된 불교학의 의무적 이수와 학점취득의 의무가 굳이 따맡겨지고 있지만 이런 방법에 의한 기대하는 종교교육의 실효를 거둘수 없는 종교교육의 空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가, 그 원인을 규명하기에 앞서 종교교육이란 말 자체를 다시 소급시켜 생각해 보자。

宗教的 경험

○……○

宗教教育이라고 할때의 「教育」을「훈듀이」에의 「改造」라고 말하고있다。말하자면교육의 철학적 정의는 自我가 성장을 위하여 他我와 상호교접하고 상호교육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반, 절대적 정의는 自我가 성장을 위하여 他我와 상호교접하고 상호교육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